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	2020년 1월 8일
위원정수 10명	참석 9명

1. 회의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11:00
2. 회의장소 : 회의실
3. 회의안건 : 가.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나.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다.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4. 의원참석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참석	불참	비고
위원장	교수	박승익	○		
위원	교직원	변재중	○		
		조을연	○		
		오재훈	○		
	외부전문가	윤여동	○		
		김현채	○		
	학부모	이현수	○		
	학생대표	김영훈	○		
		윤종민	○		
		서화장			○

위원장(박승익) :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총무처장에게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총무처장(조을연)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해 주셔서 회의 요건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위원장(박승익) : 회의가 성원됨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의 안건은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및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등 4건 입니다.

▣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위원장(박승익) : 대학 첫 번째 심의 안건인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조을연) :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으로 편제정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상승 등 등록금 인상요인이 많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였으며, 국가 시책과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부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은 전년대비 13만원 인하하고 수업료는 동결하는 책정(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외화로 등록금을 받을 경우 매년 환율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입학금은 전년과 동일한 6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수업료는 정원 내 재학생 기준으로 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각 1,000원을 1달러의 환율을 적용하는 책정(안)을 제시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입학정원 가중평균 기준 1.92% 인상하는 책정(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원 내 재학생 기준 1,000원을 1달러의 환율을 적용하여 책정(안)을 제시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상승 등 등록금 인상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부 입학금을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하였으며,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매년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외화 등록금은 정원 내 입학정원 등록금 결정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 기본방향과 등록금 책정(안) 및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

위원장(박승익) : 2020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은 국가 시책과 가계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년대비 입학금은 13만원 인하하고 수업료는 동결(안)

(입학정원 가중평균 대비 편제정원 감원 및 계열간 정원 조정으로 인해 0.36% 자동인상)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원 등록금은 타 대학교 대학원에 비해 정원이 적고 등록금이 낮은 편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율을 최소화 하여 입학금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입학정원 가중평균 전년대비 평균 1.92% 인상(안)을 제시하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전년대비 입학금과 수업료 모두 동결하고 대학원의 경우 정원내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의 외국인 신입입학 유학생의 등록금은 달러로 책정하고 정원내 학생 등록금을 기준으로 1,000원을 1달러의 환율로 적용하여 책정(안)을 마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이현수) : 우송대학교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지원금을 수주하고, 등록금을 동결하여 국가 2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2학년도 5.5% 인하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까지 8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해 보입니다. 학생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 원(조을연) : 교육부에서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1.5배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상율 한도를 공시하고 있고,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및 재정관리자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에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종 평가와 국가2유형장학금과 연계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0.1%라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만 생각한다면 인상시기가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위 원(김현재) : 2018년과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2020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학부 입학금을 33%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하는 (안)을 제시해 주시고, 대학원 등록금도 정부의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 책정(안)을 제시해 주셔서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면, 강제적인 인상억제는 학교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조을연) : 등록금 동결 뿐 아니라, 입학금도 매년 13만원씩 인하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의 경우 2017년 대비 약 7억8천만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학부생의 경우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상태로 앞으로 더욱 심한 재정 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 원(윤여동) :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외화로 등록금을 징수하는데 1,000원을 1달러로 책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교육부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국 전에 표준입학허가를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화로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오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과 많은 연관이 있어 재학 중에도 외화로 등록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외화 책정액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원 내 재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원 내 등록금 기준 1,000원을 1달러로 책정하였으며, 환율변동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원(이현수) : 타 대학도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우선~~ 우송대학교는 학부 입학금 인하와 수업료 동결 및 납부제도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제시 하신 것 같습니다.

위 원(변재종) : 계속적으로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다면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종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원(오제훈) : 결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우송대학교에서는 국제교류 등을 통한 유학생 모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조을연) : 사회적 관점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언론 등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재정지원사업 참여등과 연계되어 있어 학부 입학금 인하와 수업료 동결은 부득

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을 대학 자율적으로 책정 하도록 되어 있어 인상할 수도 있으나,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의 경우 입학 금과 수업료 모두 전년 대비 동결하여 1,000원을 1달러의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책 정하였고, 대학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원 내 학생들과 동일하게 하여 1,000원을 1달러의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책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국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연계해서 학생 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책정 현황은 매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 학칙 제8조의 수업연 한이 3.5년에서 4년으로 개정되었고, 여름·겨울학기가 정규학기지만 자율적으로 수강 하도록 변동됨에 따라 등록금징수규정이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여름, 겨울학기를 수 강할 경우 4학년 수업료를 기준으로 5분의 1씩 납부하도록 하고 미수강한 경우 4학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종전 다학기 (1년 4학기+4학년 1학기) 기준에서 4년(1년 2학기) 기준으로 공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학년간 정원에 조정에 따른 자동인상을 제외한 인상은 없습니다.

위 원(김영훈) : 8년 연속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하고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정원 내 학부 입학금을 13만원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하고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학부의 경우 전년대비 수업료를 동결하였을 경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대학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다년간의 입학정원 감원과 학년간 정원조정에 따라 총 29명 의 편제정원 감소 등 학사개편 사유로 인해 입학정원 가중평균 등록금 자연 인상분이 0.36% 발생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자연 인상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한국 장학재단의 장학관리위원회 검증을 통해 국가2유형 장학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원(조을연) :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쳤음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에 대한 등록금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정 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있어 전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1학기 및 2학기에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을 적용하고 여름, 겨울학기에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점당 4학년 수업료의 18분의 1을 적용하고, 학점이 부과되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 도록 의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 원(변재중) : 대학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를 정부의 정책 발표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원(조을연) : 교육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의 특성에 맞게 등록금 납부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였기에 우리대학에서 시행중인 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 가상계좌 납부, 신입입생을 제외한 신용카드 납부 및 온라인을 통한 분할납부 신청과 분할납부 4회 실시 현황 등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학생들이 분납신청시 납부횟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분할납부시스템을 보완하고 분납과 학자금대출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 원(윤종민) : 학생회에서 학교의 정책에 감사를 드리며 학생들과 노력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해 운영비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제시하신 학부 입학금 33% 인하 및 수업료 동결(안)(입학정원 가중평균 등록금 자연 인상 0.36%)과 대학원 등록금 입학 정원 가중평균 1.92% 인상(안) 및 등록금 납부제도(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위 원(이현수) : 또한 학부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년대비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과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인상(안)과 1,000원을 1달러의 환율로 적용하여 달러로 책정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박승익)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위원 전원 재청하다.) 학생위원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20학년도 학부 입학금 13만원 인하 및 수업료 동결(안)(입학정원 가중평균 등록금 자연 인상 0.36%)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 입학정원 가중평균 1.92% 인상(안) 및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계획(가상계좌 납부, 재학생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4회 실시, 분납과 학자금대출 연계 등)(안)이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학부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과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수업료는 정원 내 학생들과 동일하게 인상하여 달러로 책정하며 환율은 1,000원을 1달러의 환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책정(안)이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위원장(박승익) : 다음은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과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조을연)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재학인원 변동, 국고보조금, 기타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 증감 등의 사유로 본 예산을 변경하고자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해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심의해 주신 학부 입학금 13만원 인하 및 수업료 동결(입학정원 가중평균 대비 입학정원 감원 및 계열간 정원 조정으로 인해 0.36% 자동인상)과 대학원 등록금 입학정원 가중평균 전년대비 평균 1.92%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및 주요사업비와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편성(안)에 및 주요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다.)

위원장(박승익) : 총무처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윤여동) : 2019년과 2020년 예산(안)을 보면 학부 입학금을 인하시키고 수업료를 동결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및 각종 지표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장학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 원(조을연) :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5%, 2019년도 10.6%, 2020년도 2.9% 인상되어 학교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인건비와 근로장학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계약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존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상담, 동아리경시대회 등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재미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복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유학생 유치에 위해 국제 교류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재학률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 및 SW중심대학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적립금을 인출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원(이현수) : 앞으로는 외국인과 편입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윤여동) : 우송대학교는 국제교류가 특성화된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타 대학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다면 학생 정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이현수) : 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건물감가상각비 충당을 위한 적립 금액이 적고 오히려 건축기금, 장학기금 인출액을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자금 예산(안)에도 각종기금 인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였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위 원(조을연) : 우송대학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 부득이하고 건축적립금 인출하고 학생들의 장학 혜택을 축소할 수가 없어 장학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운영사업에 따른 대응투자 자금으로 특수목적기금 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비 최소화와 각종 국고사업을 수행하고 더많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재정건전성은 확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등록금회계 전년도 잉여금 예산을 700,000천원으로 편성하면서 2018학년도 결산 후 잉여금 예산을 초과하여 이월될 경우 직접교육비로 활용하거나, 장학금 지급 및 건물감가상각분에 대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었는데 2018학년도 결산 결과 등록금회계 이월금은 650,127천원으로 추가 반영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2020학년도 본예산 등록금회계 전년도 잉여금 예산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최소화 하여 700,000천원으로 편성하면서 2019학년도 결산 후 잉여금 예산을 초과하여 이월될 경우 학생지원비 등 직접교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 원(김영훈) :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수주와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 원(이현수) :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원과 입학금 인하 및 수업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인건비 부담과 각종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비 절감을 통해 긴축 재정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박승익)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에 재청하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재청으로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관한 심의와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관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박승익) :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할 것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조을연 위원, 변재종 위원, 오제훈 위원을 대표 서명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위원	변재종	서명
위원	조을연	서명
위원	오제훈	서명

122

122

43 시승

12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서 명
교직원	박 승 의	박승의
	변 재 종	변재종
	오 제 훈	오제훈
	조 을 연	조을연
전문가	윤 여 동	윤여동
	김 현 채	김현채
학부모	이 현 수	이현수
학 생	김 영 훈	김영훈
	윤 종 민	윤종민
	서 화 장	